

# 진여 자체에는 욕망도 고통도 없다



##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진여가 일으키는 혼수는 무명을 없애는 힘을 발휘한다. 진여혼수가 향기라면 무명혼수는 악취라 할 것이다. 향기가 강하면 악취가 없어지고 악취가 강하면 향기가 없어진다. 본문에서 진여의 혼수에는 자체에서 혼수되는 것(自體相薰習)과 작용에서 혼수되는 것(用薰習)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자체상혼수’이란 진여 자체인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이 조금도 허자가 없는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저절로 혼수하는 능력이 나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수도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마지막 목표가 되는 것이다. 보통의 범부들이 발휘할 수 없는 초인적 능력이 진여 자체의 본성에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면 일체의 고통과 무지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참되고 한결같은 진여 자체인 마음에는 아무런 욕망과 고통이 없다. 본성이 밝고 깨끗하여 불가사의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각(覺)의 설명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의 전인적 속에

들어있는 완전성을 향하여 진여의 혼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진여를 통한 혼수가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의 안팎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 진여혼수에 대하여 질문을 제기한다.

“만약 일체 중생이 누구나 진여를 가지고 있다면 똑같이 모두가 진여혼수가 되

### 좋은 스승 등 외적 계기 있어야 佛法 성취해 깨달음 증득 가능

어야 할 것이거나 어쩌서 믿는 이도 있고 믿지 못하는 이도 있어 한없는 차별이 있는가? 응당히 모두가 다 같이 진여법이 있는 것을 알아서 부지런히 방편을 닦아서 똑같이 열반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이렇다.

“진여는 본래 하나이지만 한량없고 가없는 무명이 있어 개인의 성품에 물든 정도가 차별되어 두렵고 얽음이 같지 아니

한 까닭에 항하의 모래알 수 보다 많은 번뇌가 무명에 의해서 차별을 일으키며, 아견애염번뇌(我見愛染煩惱)가 무명에 의해 차별을 일으키니, 이렇듯 무명이 의한 번뇌 때문에 진여를 바르게 믿거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명에서 일어난 번뇌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진여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중생에게 전해지는데 있어서도 인연이 있어야 한다. 내적인 인(因)과 외적인 조건(緣)이 다 갖추어져야 불법을 수지하게 되는 하나의 통칙(通則)이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나무 계속 마찰시키면 불이 이어난다. 나무 속에 불의 인(因)이 있어 내적인 원인이 되고 사람의 힘으로 마찰시키는 행위는 외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마찰을 시켜 열이 나오도록 했을 때 불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두면 나무에서 저절로 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중생의 경우도 이와 같이 마음속에 무명을 타파할만한 진여의 혼수력인 내적 원인이 있지만, 만약 지혜로운 진정한 구도자나 좋은 스승을 만나서 등 발심하는 외적인 계기가 없으며 스스로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다. 따

라서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계기 곧 인연이 갖추어질 때 불법(佛法)을 성취하여 열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진여의 작용에 의한 혼수(用薰習)는 진여의 마음이 중생의 자각을 위한 외적인 계기가 되어 혼수하는 것을 말한다. 중생이 깨달아 가는데 있어서 그 근본원인이 되는 것은 진여의 마음 그 자체이고 그 외적인 계기가 되는 것에는 불·보살이 있다. 외적인 조건이 이루어지는 데는 수많은 것이 있지만 간략히 말하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차별된 조건과 또 하나는 평등한 조건이다. 차별연은 개별적인 것으로 개개인의 내적 준비나 수용자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차별이라 한다.

평등연이란 보편적인 계기가 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와 닿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수한 조건을 전제하지 않고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혼수하여 중생을 거두어 주는 불·보살의 대비 원력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마치 아름다운 꽃이 향기를 풍기듯 깨달은 자의 진여의 마음에서 자타를 구별하지 않는 동체의식을 통한 지혜가 나와 보고 듣는 대로 중생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때 중생들은 그 삼매의 힘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부처님을 평등하게 볼 수가 있으며 평등연이라 한다.



## 항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 설렘과 우울증

설렘과 우울증은 빛과 어둠과 같다. 돌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기 때문이다. 설렘은 희망으로 부터 비롯되고 우울증은 절망으로 부터 출발한다. 어느 책 제목처럼 새벽마다 설렘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는 빛과 희망으로 충만한 승리자이다.

몸과 마음이 나른하고 꿈과 기대마저 사라져버린 할 일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둠과 절망의 늪과 터널에 갇힌 패배자이다.

<법화경>의 ‘사람이 곧 부처’라는 열린 진리와 <화엄경>의 ‘일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체유심조의 밝은 빛은 누구에게나 희망의 메시지가자 삶의 등대임이 분명하다. 중생이 곧 부처일 수 있고, 번뇌가 곧 깨달음에 이르는 터전임을 인불사상(人佛思想)을 통해 무한대의 힘을 얻는다.

불교의 깊은 사상에 접근하지 않

칠 수 없는 아지랑이이다. 아침에 한 결심을 저녁까지 지키지 못하고, 내 스스로 무너트리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내 입안의 허일 수 있겠는가?

나는 그 누구의 것이 온전히 될 수 없으면서도 그 누구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되어야한다는 논리는 이기주의적 아집(我執)에 사로잡힌 망상 중 망상이다. 알면서도 모르는 체 넘어가고 입장 바꿔 상대를 용서하며 설득보다는 배려로 빛과 어둠이 돌이 아닐 하나로 어우러져 살 일이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은 바늘구멍 같은 곳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여섯 가지 실천덕목 중 첫 번째가 나눔의 행위에 있음을 명심할 일이다. 부드러운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위로하고 두려움을 가시게 하는 말 등은 보시(布施)의 첫 걸음인 언시(言施)에 속한다.

혼자 있어도 머릿속이 복잡하면

##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안다 나의 존재만으로도 기적이며 축복

더라도 지옥과 극락이 둘이 아닌 하나요 열고 닫음의 마음의 조화에 의해 행복과 불행이 동전의 앞뒤처럼 가까이 어깨동무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야 청춘이라는 말과 같이 아파야 인생의 삶이 더욱 소중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어둠이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알고 배가 고파야 먹거리가 약 인줄 알기 때 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만과 권태 사이로 끊임없이 오고가는 벽시계의 시계추 같은 삶을 이어간다. 먹거리가 많아도 원초적 배고픔은 그림자 처럼 따라 다니고, 마실 것은 많아도 본능적 타는 목마름은 생명의 무게만큼 질기고 길다. 사람은 많 아도 마음 나눌 자 찾기가 어렵고, 친구는 많아도 진정한 의미의 대화자는 만나기 어렵다. 홀수로 있을 때는 짝수를 그리워하나, 짝수로 있을 때의 삭풍이 몰아치는 대화의 단절과 이해의 결핍은 홀수 때의 출가분할 자유를 그림계 만든다.

하여,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지만 몸과 마음이 통 할 수 있는 찰떡궁합은 신기루처럼

여럿 속에 있는 것이요, 여럿 속에 있어도 마음이 맑으면 혼자만의 여유와 개운함을 누리는 것이다.

느린 비결은 없겠지만, 더디게 곱게 늙은 비결은 설렘이다. 반대로 빨리 늙고 추하게 늙은 길은 우울증이다. 설렘은 누구에게나 삶의 활력소가 되어 빛을 부르지 만, 우울증은 의학계에서도 병으로 규정해 치료해야할 어둠으로 인식하고 있다. 세상살이의 가치기준은 어차피 사람마다의 눈높이에 의해 재단되고 결정된다. 삶에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착각은 빛을 불러들인다. 긍정은 설렘과 돌이 아닌 하나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착각은 어둠을 몰고 온다. 어둠과 우울 증은 쌍둥이 같은 닳음 풀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세상의 중심, 발길 닿는 곳이 정토(淨土)이다. 그 누구 보다는 나의 삶이 소중하고 나의 오늘은 인생살이에 있어 최고의 전 성기임을 잊지 말자. 나의 존재, 그 하나만으로도 기적이자 또 하나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 구함·해탈·자비심... 보시가 가진 세 가지 맛



##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 ③ 보시하는 즐거움

智人喜惠施 甘樂菩提味 (지인희혜시 감락보리미)  
深見三有過 涅槃味甚樂 (심견삼유과 열반미심락)  
速疾欲遠離 一念頃不住 (속질욕원리 일념경불주)  
又見於施樂 復過於涅槃 (우견어시락 부과어열반)  
愛樂施自在 心則忘菩提 (애락시자재 심칙망보리)  
心一忘菩提 謂菩提難得 (심기망보리 위보리난득)  
自觀樂施心 由悲眾生故 (자관락시심 유비중생고)  
不覺施味樂 施有三樂味 (불각시미락 시유삼락미)  
一者求報施味 二者求解脫施味 三者求大悲心施味 此三種味者名增長樂味

施(일자구보시미 이자구해탈시미 삼자구대비심시미 차삼중미자명중장락미시)

### 번역

지혜로운 사람의 즐겁고 은혜로운 보시는 달고도 즐거운 보리(菩提)의 맛이며, 깊은 견해로 삼계윤회의 생사를 지난 열반의 맛이어서 심히 즐겁습니다.

속히 괴로움과 욕심을 멀리 여의어 한 생각이라도 잠시 머물러서는 안 되거나, 또한 보시의 즐거움을 보며 다시 열반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사랑스럽고 즐거운 보시에 자유자재할 지라도 마음에 보리심을 잃거나, 마음에 이미 보리심을 잃었다면, 보리(菩提)를 얻기 어렵다고 합니다.

스스로 보시하는 마음을 즐겁게 관찰해

야 하는데, 중생이어서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는 까닭이라면, 보시하는 즐거움을 맛을 모르는 것이니, 보시에는 세 가지 즐거운 맛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시를 통해 과보를 구하는 것이며, 둘째는 보시를 통해 해탈을 구하는 것이며, 셋째는 보시를 통해 자비심을 구하는 맛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룸하여 즐거움을 증장하는 보시의 맛이라고 합니다.

### 해설

이번 계승에서 제바라보살(提婆羅菩薩)이 하고자 했던 법문을 간략히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이 즐겁고 은혜롭게 베푸는 보시는 달고도 즐거운 보리(菩提)의 맛이 나고, 깊은 견해로 삼계윤회의 생사를 지나는 열반의 맛이라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괴로움과 욕심에 한 생각이라도 잠시 머물러서는 안 되듯이 보시를 그치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한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보시를 하였다든 집착심이자 보시 받은 사람에 대한 집착이면서 보시물에 대한 집착이다.

둘째, 보시에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보시의 과보와, 보시를 통한 해탈과, 보시를 통한 대자비심(大慈悲心)이다.

보시의 마음은 보시를 받는 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보시 받는 이가 중생이어서 보시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자비의 보시가 아니라고 하였다. 보시하는 이는 보시를 받는 이를 통해 비로소 보시의 과보를 받을 수 있고, 보시를 할 수 있기에 해탈의 맛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시를 받는 이는 보시를 하는 이에게 오히려 은혜로운 이가 되 니라 구결하는 이가 부처님의 화신이라는 생각으로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락(三樂)에 대한 해석으로 덧붙이자면, <대보적경>에 이르기를, 열 가지 선업(善業)을 닦은 이가 천상에 나서 받는 즐거움인 천락(天樂)과, 선정에 들어 적정(寂靜)의 즐거움을 받는 선락(禪樂)과, 나고 죽는 고통과 즐거움까지 모두 없는 구경락(究竟樂)이 있다고 하였다.

#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황금 나한도와 달마도를 모셔두면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 잡귀는 범접을 못하고 발산하는 성스러운 기운은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 황금순금 나한도

- 순도 99% 순금
- 작품크기 30cm × 20cm (액자전체 50cm × 40cm)
- 16나한들의 내력과 이름들을 기록한 16나한설명서를 드립니다.

### 진품소림달마도

- 작품크기 30cm × 20cm (액자전체 50cm × 40cm)
- 청각화백의 진품 소림달마도입니다.
- 진품확인서를 함께 드립니다.

### 작품가격

- 황금 16나한도 + 진품소림달마도 : 178,000원  
- 황금 16나한도 128,000원 (액자포함)  
- 진품소림달마도 78,000원 (액자포함)
- 나한도족자 : 100,000원 (44cm × 72cm)

16나한님은 깨달음의 징표이며, 최고의 성자이신 위대한 열여섯분의 나한들 그 자유분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황룡나한, 복호나한 두분을 추가하여 18 나한으로 도판(평면도자기)위에 순도 99프로의 순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나한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자로 6가지神通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떠난 성자입니다. 황룡나한은 미륵불의 화현이며 용 위에 복을 실어 중생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6나한들과 그의 권속나한들에게 미륵불께서 오실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들께 복전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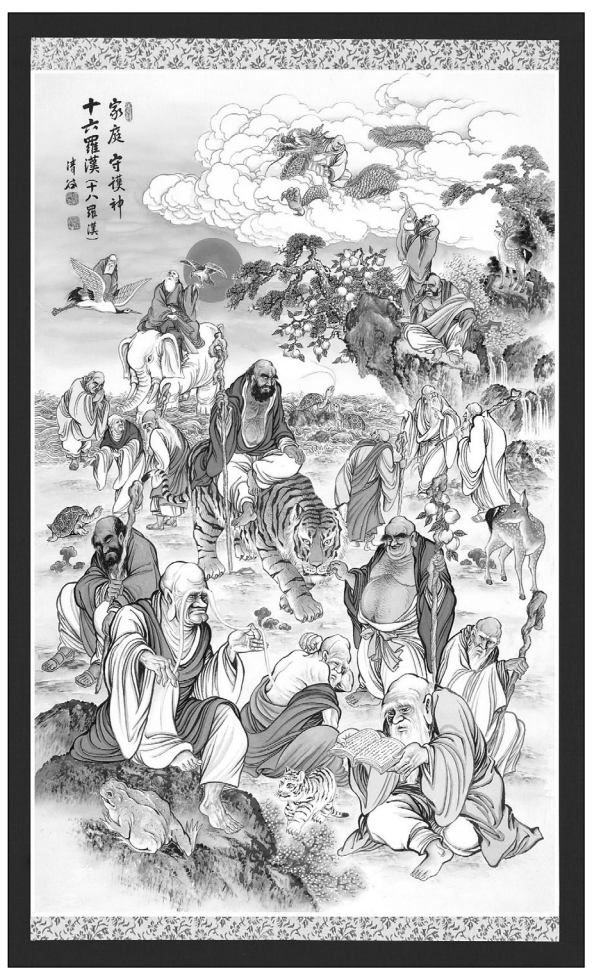
진품소림달마도는 달마대사의 34대 제자이시고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방장이신 석연화 스님께서 글을 쓰시고 중국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운영위원장 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성하신 작품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황룡상의 한자로 신이 깎게 나왔으나 실재로는 99% 황금색임)



진품 소림 달마도 (수제 적외선으로 발송은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나한도 족자 (이미지를 잘 보이기 위해 그림을 강조하였으며, 실재는 족자 완성품임.)